월간 이하우징 2023.02

MARKET REPORT_2023년 7대 국내 트렌드 – OUR HOPE of overcoming the unknown-unknown crisis –

ehousing

www.ehousing.kr

TOTAL INTERIOR MONTHLY MAGAZINE 이하우징

9 771739 230006 02
ISSN 1739-2306

SPACE
위례숲우미린
롯데리조트 속초_미니 골프 포레드
Tribeca Loft
Under the Top
House That Opens Up to the Sun
STROM flat
Lynk & Co Barcelona

CULTURAL SPACE 어반베이스 동탄
TREND LX하우시스 2023 TRENDSHIP '소프트웨어'
LIVING 이케아, '2022 라이프 앳 홈 보고서' 발표
CRAFTS KCDF갤러리 윈도우 기획전
'행복의 사물들-Happy New Craft' 전시
MARKET REPORT 2023년 7대 국내 트렌드
– OUR HOPE of overcoming the unknown-unknown crisis –

2023 02
VOL.273 FEBRUARY
이하우징 구독 및 광고문의 | 02.3444.9770

태양열과 빗물, 블라인드로 자급자족하는 패시브 하우스

House That Opens Up to the Sun

에디터 박하나 **제공** Stempel & Tesar architekti

프로젝트명project House That Opens Up to the Sun
위치location Male Kyjace, Czech Republic
설계 및 디자인architect&Design Ján Stempel, Jan Mikub Tesar
/ Stempel & Tesar architekti (www.stempel-tesar.com)
면적area 15m²
사진photo Filip Šlapal (www.filipslapal.cz)

previous page. 건물은 태양 광선을 향해 부채처럼 열려 태양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집의 내부가 해가 뜨고 질 때까지 채광이 충분한 상태로 만들어주었다.
left page. 작은 면분의 빗물을 최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루트 존 트리트먼트 식물을 정원에 조성해 건조한 기후에도 정원에 충분히 물을 공급할 수 있다.
this page. 원예 도구와 자전거는 오렌지 컬러의 선적 컨테이너에 보관되고 있다.

In the southern part of Malé Kyšice town on the edge of the Křivoklát woods, there is a residential district originally home to weekend cottages. One such cottage on a flat plot of land was replaced by a passive home. The floor plan closely resembles a quarter-circle with walls made of exposed concrete blocks. The rounded wall and the ceilings are made of wood. The building opens up to the southwest into a fully grown garden. The fully glazed facade consists of windows set in anthracite frames, which are shaded by blinds inside the triple-glazed windows. The ceiling beams extend to cover the balcony on the upper floor and the terrace on the ground floor. The architects made extensive use of the contrast between the concrete and wooden building elements in the interior as well. The ground floor is home to a living room, kitchen, and dining room, and an open staircase leads to the four bedrooms upstairs. The bathrooms, service rooms, and storage spaces are located along the concrete walls.

The building's story began to be written before the world was paralyzed by the pandemic and before Europe was gripped by an energy crisis. Did the owners' sixth sense motivate the family to acquire a low-cost house surrounded by a beautiful garden? Not at all: it was their natural and responsible approach to life and their respect for nature, which must be protected. The principles applied during construction will continue to be relevant even after we overcome today's pressing issues, when we all accept the threat of climate disaster, which we have perhaps ignored too much in the face of the uncertainties of the past few years. Light and warmth, earth, and last but not least water. The client's demands – or rather, their way of life – infuse every detail of this house located on the edge of the town of Malé Kyšice near the Křivoklát woods.

The building opens up to the sun's rays like a fan, soaking up its energy and seeking to use it economically. Thanks to its shape, the interior welcomes the first as well as the last rays of sunlight. But the house also knows how to keep from overheating, thanks to an overhanging roof and horizontal shading that protects the windows from the midday sun in the summer and acts as a balcony on the upper floor. In addition to the building's pragmatic shape and passive shading, comfort on summer days is also aided by blinds built into the triple-glazed windows. Thanks to quality workmanship and the use of modern technologies, their effectiveness is comparable to outdoor blinds. Naturally, the homeowners appreciate warmth in the winter, when warmth gathered from the sun reduces heating costs. The building's self-sufficiency is further aided by a stove with a heat exchanger at the heart of the building. A stairway winding its way around the stove leads up to the bedrooms located above the living room.

this page_top. 건축가는 내부에서도 콘크리트와 목조 건물 요소 사이의 대비를 광범위하게 사용한 점을 알 수 있다.
this page_bottom. (좌) 삼중 유리 창문에 내장된 블라인드가 여름에도 덥지않고 편안함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우) 건물의 자급자족은 거실 중앙에 열 교환기가 있는 난로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난로 주변으로 구불구불한 계단은 거실 위에 위치한 침실로 이어진다.

this page. 집은 재생 가능한 재료인 목재로 지어졌다. 거실의 목재 천장 빔은 위층의 발코니와 1층의 테라스까지 확장된다.

Křivoklát(키보클라트) 숲 가장자리에 위치한 말레 키슈이체(Malé Kyšice) 마을의 남쪽에는 원래 주말 별장이 있던 주택가가 들어서 있다. 평평한 땅 위의 주택 중 하나는 패시브 하우스로 대체되었다. 평면도는 노출 콘크리트 블록의 벽이 덧대어진 1/4 원형모양과 매우 유사하며, 벽과 천장은 나무로 만들어졌다.

건물의 이야기는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마비되기 전, 유럽이 에너지 위기에 휩싸이기 전에 쓰여지기 시작했다. 집주인은 처음부터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싸인 저렴한 집을 구입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삶에 대한 그들의 자연스럽고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과 자연에 대한 존중을 중요시했다. 그로 인해 건설 과정에서 적용된 원칙은, 지난 몇 년 동안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너무 무시해 왔던 기후 재해의 위협을 오늘날의 긴급한 문제가 극복된 후에도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빛과 따뜻함, 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물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클라이언트의 요구이자 그들의 생활 방식은 Křivoklát(키보클라트) 숲 근처 말레 키슈이체(Malé Kyšice)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집의 모든 세부 사항에 스며들었다.

건물은 태양 광선을 향해 부채처럼 열려 태양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집의 내부가 해가 뜨고 질 때까지 채광이 충분한 상태로 만들어주었다. 특히 돌출된 지붕과 수평의 가리개가 한낮의 여름 태양 빛으로부터 창문을 가려주고, 위층의 발코니 역할을 하고 있어 집이 햇빛으로 인해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 또한 막아주고 있다.

이처럼 건물의 실용적인 형태와 패시브 방식의 차양 외에도, 삼중 유리 창문에 내장된 블라인드가 여름날의 편안함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만큼 높은 품질의 현대적 기술을 사용한 내부 블라인드는 그 효과가 외부 블라인드에 버금간다고 볼 수 있다.

집은 재생 가능한 재료인 목재로 지어졌다. 건물의 구조는 형태를 존중하면서 내부와 외부에 마감 완성도를 더해주는 강철 이음새와 타이 로드(tie rods)로 이 건물의 시공 원칙을 날날이 드러내고 있다.

전체 유리로 된 파사드는 무연탄 프레임이 설치된 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중 유리창 내부의 블라인드로 음영 처리된다. 거실의 목재 천장 빔은 위층의 발코니와 1층의 테라스까지 확장된다. 그만큼 건축가는 내부에서도 콘크리트와 목조 건물 요소 사이의 대비를 광범위하게 사용한 점을 알 수 있다. 1층에는 거실, 주방, 다이닝룸이 있으며, 열린 계단을 통해 위층에 있는 4개의 침실로 연결된다. 또한 욕실, 휴게 공간 및 창고는 콘크리트 벽을 따라 위치해 있다.

클라이언트는 태양으로부터 모인 온기가 겨울에 난방비를 줄여주며 따뜻함이 배가 되었다고 만족해했다. 건물의 자급자족은 거실 중앙에 열 교환기가 있는 난로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난로 주변으로 구불구불한 계단은 거실 위에 위치한 침실로 이어진다. 특히 계단 난간은 철망으로 둘러쳐져 있으며, 이는 난로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담당한다. 난로 옆 거실 공간은 콘크리트 질감의 바닥과 벽돌 모양의 벽으로 채워져 있다.

계단 옆에는 난로와 동일한 블랙 컬러의 주방가구가 위치해 있다. 일자형으로 단정하게 배치된 주방 가구 앞에는 다이닝룸 식탁과 테이블이 놓여있으며, 외부의 자연 풍경을 바라보며 식사할 수 있다.

위층에 위치한 방은 선박 객실처럼 만들어졌으며, 화이트 컬러의 빌트인 가구가 기둥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욕실은 콘크리트 질감의 견고하고 안정적인 벽을 따라 집중되어 건물의 남쪽과 북쪽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다.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의 다른 중요한 요소는 내구성과 수명이다. 이러한 이유로 건물의 바람이 불어오는 쪽은 콘크리트 블록으로 만든 벽으로 보호되고 있다. 단열 샌드위치 벽은 건물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따뜻한 온기를 축적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집이 물을 사용하는 방식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작은 연못의 빗물을 최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루트 존 트리트먼트(root zone treatment) 식물을 정원에 조성해 건조한 기후에도 정원에 충분히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정원은 지표수를 유지해 집에 근접한 장소의 기온을 쾌적하게 만들어 준다. 이 집은 지역 하수구로 폐수를 방출하지 않으며, 모든 물은 최소 두 번 사용되고 있다.

클라이언트 가족은 이 집이 완성되기 전에 이사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클라이언트 가족은 집뿐만 아니라 정원도 그들의 방식으로 만들었다. 정원 아래에는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립식 지하실이 숨겨져 있으며, 원예 도구와 자전거는 오렌지 컬러의 선적 컨테이너에 보관되고 있다. 그만큼 이 집은 현재 자신의 삶을 살고 있으며 점차 정원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이며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로 손색이 없다.

this page. 위층에 위치한 방은 선박 객실처럼 만들어졌으며, 화이트 컬러의 빌트인 가구가 기둥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this page_top. 돌출된 지붕과 수평 가리개가 창문을 가려주고, 위층의 발코니 역할을 하고 있어 집이 햇빛으로 인해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 또한 막아주고 있다.
this page_bottom. 욕실은 콘크리트 질감의 견고하고 안정적인 벽을 따라 집중되어 건물의 남쪽과 북쪽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다.